

“10년 입찰 들러리… 불법낙찰 83개업체 공개하라”

한전 입찰비리에 전기업계·노조원들 분노 폭발 저가 하도급 따른 임금 하락 성토 속 수사 주시

소문으로만 돌던 한전 전기공사 입찰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기업계와 전기원노조가 들끓고 있다.

전기업계 측은 ‘허술한 입찰 관리로 10년이나 입찰에 들러리 선 꼴’이라며 한전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재입찰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법 낙찰→하도급→조합된 임금 하락’을 불러왔다고 판단한 전기원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돼 수사가 지연되거나 의지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수사 방향 및 진행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3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전남지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점 특수부(부장검사 김중범)가 지난 17일 한전에서 10년간 2700억원대의 전기공사 입찰 비리가 이뤄졌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입찰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낙찰받은 업체 83곳 공개 여부 및 제재 방침 ▲한전의 재입찰 계획 및 해당업체의 불이익 적용 수준 ▲부실한 입찰 관리의 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에는 전기공사협회에 등

록된 업체가 1500여곳이 있는데 입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전 파견업체 직원에게 돈을 건넨 83개 업체가 최소 133건 이상의 공사를 독식했다는 점에서 한전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공사 협회 측은 한전과는 별개로, 입찰 비리 연루가 확인된 전기업체의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영입금지·취소 등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전기업계 측은 검찰 수사를 통해 입찰 비리 연루 업체, 한전 직원 연루 여부 등 범행 전모를 밝혀줄길 바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뇌물 범죄에 이어 입찰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업계가 초토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 입찰 비리 수사와 관련 수차례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관계자는 “구속된 한 전기업자가 불과 1년4개월 사이 150억원에 이르는 전기공사를 불법 낙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한전 직원 연루 여부와 연루 업체에 대한 소환 조사 등 핵심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수사가 용두사미 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공사 입찰비리가 전기노동자의 임금하락을 불러왔다고 판단한 전기노조 측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 일각에서는 그러나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면서 한전 입

찰비리 관련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한전 측은 제기되는 불만과 의혹을 받아들이면서도 불법이 확인된 전기공사 입찰에 대한 재입찰 계획, 연루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는 법원 판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유중 한전 관리본부장은 “불법 공사 낙찰 등 입찰 비리가 확인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한전에서 진행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 재입찰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청 구글 검색때 흥어그림 市, 호남비하 수사 의뢰

광주시는 23일 “포털사이트인 ‘구글’에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광주를 비하하는 흥어그림 등이 등장함에 따라 호남 비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우측상단에 광주시청 이미지로 흥어그림을 합성한 국가 이미지가 게시되고 있다.

광주시는 특정세력이 호남을 비하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흥어그림 게시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구글 코리아측에 해당 그림의 삭제요청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암·고흥 등 잇단 교통사고

설 명절이 끝나는 주말과 23일 전남 지역에 교통 사고가 잇따랐다.

23일 새벽 4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조모(24)씨가 몰던 K3 차량이 배모(32)씨가 운전한 SM5 차량과 충돌해 조씨가 숨졌다. 경찰은 조씨의 차량이 교차로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른쪽으로 운행하던 중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새벽 2시40분께 고흥군 점암면 석봉교차로에서 이모(24)씨가 운전한 I30 차량이 25t 화물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씨가 숨지고 동승자인 이씨 어머니 김모(여·50)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40분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차로에서 임모(54)씨가 몰던 쉐보레 차량이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아 임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훙친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 사고 또 사고... 49분동안 무려 29회 소액결제

북부경찰, 고교생 입건

새벽에 훙친 스마트폰으로 불과 50여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모바일 상품을 구입해 사용한 10대 고교생이 붙잡혔다. 경찰 도난 신고는 오프라인상에서 17분 만에 이뤄졌지만 온라인상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게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등 시대가 바뀌면서 가능해진 범행”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광주 모 고교 1년 박모(16)군은 지난 1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A당 구장에서 이모(여·22)씨의 스마트폰

(시가 70만 원 상당) 한 대를 훙친 뒤 도망쳤다.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없던 사실을 확인한 지 17분 만인 이날 새벽 4시4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오프라인 신고는 이뤄졌지만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가 차단되지 못했다.

박군은 이 시각, A당구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800m 가량 떨어진 B식당 앞길에서 이씨의 스마트폰을 켜고 즉각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엠마켓에 접속, 1만8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한 장을 구입했다. 박군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엠마켓의 경우 휴대전화 소유자가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결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엠마켓 방법은 휴대전화 요금 합산 청구와 신용카드 결제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휴대전화 요금 합산 청구를 할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후 박군은 1~2분간격으로 이날 새벽 5시36분까지 49분간 29회에 걸쳐 햄버거·영화티켓·피자·치킨 등 43만68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마구 구입했다. 엠마켓을 이용한 모바일 소액 간편 결제 시스템이 낡은 범죄행각인 셈이다.

오프라인에서 수사망을 좁히던 북부경찰은 20일 뒤야 CCTV 화면분석 등으로 박군을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설 연휴 쓰레기 수북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새봄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설 명절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어등산리조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화해권고 결정 광주도시공사 “수용 불가” 이의 신청키로

어등산리조트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관련,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93억원 규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측은 갑작스럽게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당혹해하면서도 “(조정 등의) 대상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화해권고 결정은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2일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 “원래 계획을 변경,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와 합의해야 한다”는 안을 골자로 한 6가지 내용이 담긴 화해 권고 결정문을 어등산리조트와 도시공사에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결정 내용에는 ▲어등산리조트는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어등산리조트는 대중제 9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그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

식으로 원래 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개발하되 만일 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와 합의해야 한다”는 안을 골자로 한 6가지 내용이 담긴 화해 권고 결정문을 어등산리조트와 도시공사에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도시공사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시공사측은 “어등산리조트측이 추가 조정을 요청한 사항은 법원의 지난 2012년 조정 결정 취지에 부적절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측은 시 입장을 반영, 26일까지 이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후기자 dok2000@kwangju.co.kr

“왜 썰러봐” 주먹 휘두른 취객

○노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손님을 폭행한 20대 취객이 경찰서행.

○2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8)씨는 같은 날 새벽 4시 광주시 동구 대인동 S편의점에 들어선 뒤 다른 손님인 김모(34)씨에게 “왜 썰러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목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김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강씨는 연행된 경찰서에서도 “택시비를 주변 집에 가겠다”며 횡설수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 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 나무 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④ 전대상대 2분 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5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산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의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쌍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 수익200만, 매매가 2억8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옆 바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④ 수원지구 모야엘가람 3층 88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전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유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 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료상담해드림")

근린시설/ 근린주택

①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2천, 최저가 3억5천
②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1백, 최저가 5천6백
③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6천, 최저가 24억
④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68㎡) 감평가 10억8천, 최저가 4억8천
⑤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저가 41억

근린 상가

⑤ 서구 치평동 (대 37㎡, 건물 165㎡) 감평가 3억6천, 최저가 1억
⑥ 광산 도산동 (대 91㎡, 건물 128㎡) 감평가 1억2천, 최저가 5천5백
⑦ 북구 중흥동 (대 13㎡, 건물 32㎡)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⑧ 서구 금호동 (대 140㎡, 건물 295㎡) 감평가 6억5천5백, 최저가 4억5천8백
⑨ 광산 월계동 감평가 2억2천, 최저가 7천9백
⑩ 서구 풍암동 감평가 8억7천, 최저가 4억8천

주유소

① 서구 마북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7백
② 남구 입촌동 감평가 7억, 최저가 4억9천
③ 광산구 북룡동 감평가 8억8천, 최저가 8억8천

토 지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평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8백,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학원 (상무점)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경매학원

↓

① 기본 실전스터디반
② (평생 회원반, 소수 정원제)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 스톱

↓

①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 7시30분~9시)
② **목요일** 오후7시30분~오후9시

경매 컨설팅 헤드립니다

**010-6832-9700
062-382-5500**